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5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인천, 다문화도시로 가는 길 - '갈음의 정치'와 '다름의 정치'가 필요하다.



인터뷰 :

국제교류센터 한아름전문위원과의 만남



I/D/I/소/식



「남북협력 전망과 인천의 비전」 정책토론회
인천발전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남북협력 전망과 인천의 비전..."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한일 공동기획세미나-21세기 광역분권형 국가 운영(5/6) : 경기개...

Zoom INcheon



인천역사-5월

* 1899년 5월 15일 경
인철도 인수조항 경인
철도회사 설립 - 경
인...

도시동향



다민족/다문화 공생
을 위한 일본의 정책
(사례)
정부의 거주 외국인
대책을 보면, 현재까
지는 거주외국인 문제
에 대한 해...

IDI연구



인천시와 자매·우호
도시 간 청소년관광교
류 활성화 방안
이 연구는 중국의 자
매도시인 천진시를 중
심으로 양 도시 간 청
소년관광교...

인천지표



인천의 외국인 인구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46.1%로 가장
높고 대만 6.4%를 포
함...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8년 5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다문화도시로 가는 길

인천여성정책센터 흥미희 센터장

인천, 다문화도시로 가는 길

~ '같은의 정치'와 '다름의 정치'가 필요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이르고, 새로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 한 쌍은 외국인과 결혼한다. 2006년에는 농촌 총각가운데 무려 41%가 국제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이주민의 급증과 함께 단일민족, 순혈주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했던 한국사회가 다인종,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민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민사회를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한다는 점을 들어 다문화사회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이질적 문화들의 평화로운 공존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노력 및 정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는 이민사회의 정치목표이기도 하다.

인천도 다문화도시로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이주민 수는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민 수는 4만 명을 넘었고, 6000세대 이상이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있는 인천은 진정한 국제도시이자 다문화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면서, 최근 '2008년 아시아 이주민축제'를 추진하였고,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각 군구별로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담당공무원을 두고 있고, 국비 및 시비로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 세 곳을 운영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체험,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뿐 아니라 여성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도 한국어교육 및 건강서비스 제공 등 이주민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취업자의 인권문제, 이주민 및 이주민 자녀들의 사회적응, 다문화 공동체의 형성 등 다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다문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다문화도시로서의 진정한 면모는 '같은의 정치'와 '다름의 정치'라는 두 가지 상반되면서도 연관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같은의 정치'란 국적, 피부, 외모 등이 다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에 근거해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기본적인 건강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비롯된 정책들이다. 최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같은 피해를 본 경우 국내 사법조치를 통해 법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미등록 이주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경우 형사소를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었을 경우 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 하에서 이루어지는 '같은의 정치'의 예들이다. '같은의 정치'는 흔히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다문화사회는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다름의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 이주민들은 인간으로서 같지만, 언어나 문화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문화정책은 한 나라의 지배적 문화를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동화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의 시부모를 모시는 법, 한국에서 남편을 따르는 법 등을 가르치려하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식 규범을 가르치는 것은 '한국식 가족'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이 한국어뿐 아니라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이 '다름의 정치'의 예이다. '다름의 정치'는 보통 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법과 제도보다는 교육, 문화체험 등의

의식개선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같은 정치’와 ‘다른 정치’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인간으로서 동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정치’나 ‘다른 정치’ 모두 사회구성원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이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이 다문화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인천은 공항과 항구를 가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세계를 향한 관문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인천이 앞서서 인권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들을 펴면서 2008년 이주민축제의 슬로건이기도 한 ‘이주민과 더불어 사는 희망도시 인천’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이르고, 새로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 한 쌍은 외국인과 결혼한다. 2006년에는 농촌 총각가운데 무려 41%가 국제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이주민의 급증과 함께 단일민족, 순혈주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했던 한국사회가 다인종,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민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민사회를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한다는 점을 들어 다문화사회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이질적 문화들의 평화로운 공존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노력 및 정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는 이민사회의 정치적 목표이기도 하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5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국제교류센터 한아름전문위원과의 만남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한아름전문위원

Q 최근 국가간의 벽이 낮아지면서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로인하여 세계는 바야흐로 다문화 주의의 시대를 맞이 했는데요, 이런 다문화 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주의란 무엇인지 대략적인 설명 해 주세요.

A 다문화는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는 다문화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에요. 국제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성비례의 남성편중과 농촌의 미혼 남성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에, 한가정안에 여러문화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인거죠. 저 역시 다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인천국제교류센터내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1년여동안 운영해 오면서 다문화란 말 그대로의 정의보다 내·외국인을 국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닌 한 가족 내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인천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면서 가정을 꾸림으로써 소수로 구성된 집단인 가정에서부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이죠.

Q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선을 긋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질적 문화배경을 가진 이민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국제교류센터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해주시겠어요?

A 저희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언어는 물론 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먼저,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시민 및 외국인을 위한 오프라인 외국인 카페인 Talk House에서는 매월 한번씩 문화강화를 열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개의 국가, 지역을 선정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언어뿐만 아니라 가치관, 문화를 직접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5월 10일~11일에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부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초청하여 1박2일 동안 강화도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2008다문화 가정행복캠프를 개최했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 그동안 언어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가정불화가 많이 발생했던 국제결혼커플들에게 각1명의 통역원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고 그동안의 오해도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뜻깊었던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로, 외국인 한국 가정결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인천거주 외국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은 가정을 맺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모국을 떠나 낯선곳에서 생활해야하는 외국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한국가정을 소개해주고, 한국가정은 그들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위한 공간이었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주 여성들을 위한 생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주여성들이 집안·밖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생소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분리수거' 방법에서부터 '은행업무' 방법들과 같은 교육이에요.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답답함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한국어강화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밖에도 저희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인천시 산하 기관 및 민간업체 10여개의 단체와 협력하여 "Injoy 아시아 이주민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상반기에는 함께 뛰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체육대회를 펼치고, 하반기에는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이해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어요.

Q 인천에 거주하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A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정책으로 가장 어려운 점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정책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시행기관들이 여러곳에 분산되어있어 편리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분산이 되면 외국인들도 불편하지만 시행하는 기관들도 불필요한 경쟁에 힘써야하고 다른곳과 중복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실시해야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게 돼서 사용자와 시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국제교류센터에서 다문화도시;인천을 만들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2008다문화가정행복캠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의 벽으로 인해 발생했던 많은 오해를 1박2일동안만큼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말을 나눔으로써 부부간에 화해하고 더욱 돈독해지는 정을 직접 느낄 수 있어 부듯하고 감동적이었던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부인이 중국인이었던 부부가 생각이 가장 남니다. 15살의 많은 나이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지만 의사소통의 부재와 단조로운 생활에서 생긴 나이차만큼이나 커져버린 부부사이의 벽이 처음에는 함께 다니지도 못할만큼 어색하게 만들었던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커플게임을 통해 서로 스킨쉽을 하고, 전담통역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캠프가 끝난 다음에도 어려운일이 있으면 센터를 찾아 해결하려는 의지가 생긴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부부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알아가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어서 보람있었어요.

Q 마지막으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A 먼저, 인천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외국인, 특히 아시아계의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위험한 사람일거야', '가난할거야' 라는 등의 편견을 버려주세요. 저도 업무로서 직접 그들과 소통하기전에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어요. 하지만, 외화로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외국인을 대할 때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우리의 시민이라는 의식으로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우리시민이 될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인천거주 외국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낯선곳이지만 자신이 선택해서 살게 된 곳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응하기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해요. 그러기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만 알아져도 생활의 질은 반이상 향상될테니까요.

또한, 외국인들을 지원하려는 기관, 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다문화는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는 다문화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에요. 국제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성비례의 남성편중과 농촌의 미혼 남성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정안에 여러문화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인거죠.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5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남북협력 전망과 인천의 비전」 정책토론회



2008년 5월 21일 수요일 14:30~18:00

인천발전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남북협력 전망과 인천의 비전"정책토론회를 2008년 5월 21일 인천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주제발표제1주제: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경제관계 전망" - 박형중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제2주제: "남북한 항만개발 협력방안" -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본부장제3주제: "남북관광의 현황과 전망" - 김영운 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종합토론사회: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토론: 김태승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제관광팀 책임연구원 심진범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



2008년 5월 19일 10:00~12:00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일본중심시가지 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 - 상점가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고바야시 시게노리 교수의 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 ○ 일 시: 2008. 5. 19 (월) 10:00 ~ 12:00 ○ 장 소: 인천발전연구원 본관 1층 대강당 ○ 주 최: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교통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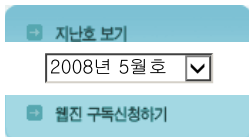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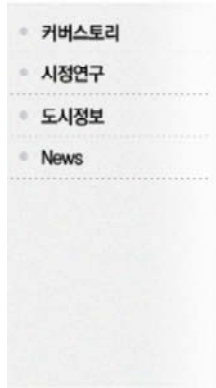
[행사알림] 2008 여성의제토론회



2008년 6월 24일 화요일 15:00~17:00

2008년 6월 24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장에서는 2008여성의제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2010년 성인지 예산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08 여성의제토론회」에서는 선진 해외사례 소개를 통한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분석방법, 성인지 예산 실행방안, 부처간 조율 등 성인지 예산 추진의 문제점,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지 예산이 갖는 함의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2008. 6. 24. (화) 15:00 ~ 17:00 ○ 장 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층...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 한일 공동기획세미나-21세기 광역분권형 국가운영(5/6) : 경기개발연구원 (031-250-3209)
- * 2008년도 제10회 Brown Bag 세미나(5/8) : 충북개발연구원(043-220-4391)
- * 한·중 해저터널 구상 국제심포지엄(5/14) : 경기개발연구원(031-250-3254)
- * 2008 제3차 가족공동체포럼(5/15) : 대전발전연구원(042-471-5696)
- * 128차대경콜로키움 - 정부간 재정과 균형발전(5/15) : 대구경북연구원 (053-770-5041)
- * 낙동강운하포럼 정책포럼(5/15) : 대구경북연구원 낙동환경연구센터(053-770-5050)
- * 제5회 대한민국 로봇대전(5/17-5/18) : 대한민국로봇대전 조직위원회 (032-250-2110)
- * 경기자원순환포럼 제1차 토론회(5/19) : 경기개발연구원(031-250-3234)
- *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5/21) : 전남발전연구원(062-230-9100)
- * 복지포럼 - 새정부 사회복지체계변화와 강원도 대응(5/21) : 강원발전연구원(033-250-1330)
- * 정책세미나 - 국제도시 대구의 외국인근로자 정책방향(5/21) : 대구경북연구원(053-770-5041)
- * 환경포럼 - 수계 상류 소하천 살리기 방안(5/23) : 강원발전연구원(033-250-1320)
- * 서울행정학회 학술 심포지엄(5/23) : 경기개발연구원(031-250-3114)
- * 재해위험 분석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 세미나(5/23) : 경기개발연구원(031-250-3224)
- * 129차대경콜로키움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그리고 대구경북의 대응방안(5/22) : 대구경북연구원(053-770-5007)
- * 에너지포럼 - 신고유가시대 대응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정책과 전략(5/27)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본부(02-2149-1073)
- * 130차대경콜로키움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부정책과 대구경북의 시사점(5/29) : 대구경북연구원(053-770-5000)
- * 부평풍물대축제(5/28-6/1) : 인천부평풍물대축제위원회(032-509-7515~7)

인천역사-5월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5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 * 1899년 5월 15일 경인철도 인수조합 경인철도회사 설립
 - 경인철도 부설권을 가진 미국인 모오스가 설립한 한국개발공사가 미국 자본가들의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경인철도 인수조합을 조직한 일본에게 경인철도 부설권 자체를 넘겨 일본의 경인철도인수조합이 경인철도회사를 설립하였다.
- * 1902년 5월 21일 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 1원권 발행
- * 1904년 5월 4일 인천 대시라양행 알선 하와이 이민 40명 출발
- * 1949년 5월 3일 인천-수원 김포 문학 송도 월미선 대한여객운수 개통
- * 1949년 5월 4일 조선맹인사업협회 설립 박두성 등 10명 준비위원
- * 1950년 5월 18일 인천시립보건의소 개소
- * 1952년 5월 26일 인천기독교병원 개원
 - 의료, 선교, 교육의 설립목적을 바탕으로 개원하여 초대원장에故강석봉박사가 취임하였고, 현재 인천시 중구 을목동에 위치하고 있다.
- * 1952년 5월 26일 부평지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신명보육원 십정동에 설립
 - 故한하운선생외 다수의 기부로 설립된 신명보육원은 초대원장에 한하운 선생이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아동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 1960년 5월 21일 인천문화단체총연합회 발족
- * 1964년 5월 8일 경인선복선 1·3공구 착공
 - 경인선이 195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 수도권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용객이 폭주하게 되자 교통 완화의 일환으로 복선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1964년 7월 24일 영등포 동인천간 27.7km의 복선공사 계획을 발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965년 9월 18일 복선 개통식이 베풀어졌다.
- * 1964년 5월 11일 인천시 속칭 꿀꿀이죽 판매금지 방침발표
- * 1967년 5월 27일 경인고속도로 기공식
 - 서울과 인천사이에 급증하는 수송수요에 대비하여 건설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1967년 3월 24일에 착공하여 1968년 12월 21일에 가좌인터체인지까지 23.4km구간이 왕복4차선으로 개통되었고, 1969년 7월21일 가좌에서 인천인터체인지까지 6km구간이 개통되었다. 1969년 4월 12일 고속버스 20대가 처음으로 운행되었다.
- * 1968년 5월 11일 인천-백령도 왕복 황진호 취항
- * 1969년 5월 31일 인천-수원직행 태화버스 운행개시
- * 1970년 5월 23일 국내최초 시멘트어선 진수식
- * 1970년 5월 29일 인천화전 1호기 준공
- * 1976년 5월 29일 미국 컨테이너전용선 인천에 정기취항
- * 1974년 5월 1일 인천제철선재 대미 처녀수출
- * 1974년 5월 10일 인천항내항 갑문식도크 준공(3만톤급 신디호 첫입항)
- * 1974년 5월 22일 인천항 민자부두 전용사용권 한진해운에 허용
- * 1974년 5월 23일 천주교 답동성당 성모상 제막

- * 1975년 5월 20일 한국기계 동양최대규모 엔진공장 준공
- * 1976년 5월 14일 정부 인천연탄값 38원으로 고시
- * 1977년 5월 10일 도화동 석굴고가교 준공
- * 1979년 5월 10일 제1회 인천시민상 7명 시상
- * 1980년 5월 23일 계산지구 64만평 구획정리 기공
- * 1981년 5월 1일 동방극장 TV에 밀려 휴업
- * 1982년 5월 20일 인천노인복지회관 준공
- * 1982년 5월 22일 자유공원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비 기공식
- * 1983년 5월 11일 인천야구장에 치어걸 첫선
- * 1983년 5월 19일 제1회 인천여류작가전
- * 1984년 5월 7일 축현국민학교 인천 최초로 컴퓨터교실 설치
- * 1985년 5월 24일 작전동 현대백화점 개점
- * 1986년 5월 3일 인천 5·3사태 발생
 - 1986년 5월 3일 신민당은 개헌 헌판식을 개최키 위해 인천 시민회관에서 인천시지부까지 행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회단체와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타협적 보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 건설”과 “삼민(민족·민주·민중)헌법 쟁취” 등을 주장하며 급진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 * 1990년 5월 3일 제1회 인천고-제물포고 정기전
- * 1990년 5월 4일 옥련동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 인천시 중구 송학동 1가 1번지에서 1946년 4월 1일에 개관한 인천시립박물관이 1990년 5월 4일 인천시 남구 옥련동 525번지 신축건물로 이전 개관하였다.
- * 1990년 5월 24일 관광유람선 코스모스호 취항
- * 1992년 5월 1일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옛 교육대학) 개관
 - 청소년회관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초등학교부터 만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항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인천시 남구 송의동에 위치하고 있다.
- * 1992년 5월 23일 서구청 인천최초로 여성동장 선임
- * 1992년 5월 31일 인천시인구 200만명 넘어 2,002,136명
- * 1993년 5월 11일 인천대 시립화 검토 최기선 시장 언급
- * 1993년 5월 22일 골든 브리지호 인천-청도 첫취항
- * 1995년 5월 6일 인천-제주간 카페리 첫 취항
- * 1995년 5월 30일 저인망 어선 86우성호 북한에 나포.
 - 나포과정에서 선원 8명중 3명이 북한해군의 총격으로 사망
- * 1996년 5월 14일 북한조립 컬러TV 인천항에 첫반입
- * 1997년 5월 6일 인천의료원 송림동 이전
- * 1997년 5월 7일 강화 해안순환도로 착공
- * 1997년 5월 18일 인천시 중구 단동산업기지 기공
- * 1999년 5월 6일 인천지하철 1호선 시운전 시작
- * 1999년 5월 7일 전국시 도지사협 인천서 첫 모임
- * 1999년 5월 20일 인천공항 관제탑 상량식
 - 인천국제공항의 관제탑은 높이 100m, 지하1층, 지상22층으로 104.3m 높이의 미국 덴버공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 규모이다.

- * 2001년 5월 9일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 * 2001년 5월 12일 신포동 차없는 문화의 거리 준공식
- * 2002년 5월 8일 인천 시내버스에 전자화폐 등장
- * 2002년 5월 12일 인천화교학교 개교100년 기념행사

**** 위의 내용은 인천일보사발행 [인천연감] 인천사
연표에서 부분발췌 수록한 것임.

다민족/다문화 공생을 위한 일본의 정책(사례)

정부의 거주 외국인 대책을 보면, 현재까지는 거주외국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내보이는 정도의 선언적 수준이며, 여러 정책들이 서로 중복되고 있어 여러 차원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아래의 일본사례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¹가 자신의 활동의 결과 이룬 성과를 정리하면서, 일본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외국인 정책수단의 지향과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펴낸 책²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발췌, 제시해 보기로 한다.

■ 인권과 공생을 위한 법 정비

- ◆ 외국인인권기본법과 인종차별철폐법의 제정
- ◆ 국적법의 전면 개정
- ◆ 입관난민법의 전면 개정 및 제도 개정
- ◆ 사면실시 및 입관난민법에서 난민인정법 분리하여 독립 제정
- ◆ 외국인등록법 폐지

■ 일할 권리, 일하는 자의 권리

- ◆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기본시책
- ◆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규의 전면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
- ◆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책
- ◆ 이주노동자에게 통·번역과 법률적 지원
- ◆ 연수제도의 근본적 시정과 기능실습 제도 폐지
- ◆ 채용 시 일어나는 국적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

■ 가족과 어린이의 인권

- ◆ 가족과 결합을 증진한 체류자격 인정과 재입국 촉진을 위한 시책
- ◆ 일본에서 성장하는 외국국적 어린이들의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 ◆ 중국잔류 일본인 가족의 결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 일본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어린이들의 권리 회복과 성장 지원을 위한 조치
- ◆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어린이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

■ 어린이의 교육

- ◆ 이주자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 ◆ 이주자 어린이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시책
- ◆ 이주자 어린이/학생의 정체성 확립 및 부모와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 ◆ 민족학교, 외국인학교의 설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 국제결혼가정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한 시책
- ◆ 일본어린이가 국제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편견없는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시책

■ 의료와 사회보장

- ◆ 공적부조에 관한 시책
-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시책
- ◆ 건강보험(피고용자보험)에 관한 시책
- ◆ 이주자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 지역자치와 외국국적 주민

- ◆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 추진기본계획 수립과 그 추진기관 설치를 위한 시책
- ◆ 다국어 서비스와 일본어 교육 보장을 위한 시책
- ◆ 외국국적 주민의 주거 확보를 위한 시책
- ◆ 재해 발생시 국적/민족/문화를 넘어서 지역주민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
- ◆ 외국국적 주민의 지역자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

¹ 일본에서 이주노동자 및 외국국적 주민 지원활동을 하는 NGO들이 1991년부터 정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문제 포럼을 개최하며 연대하던 중, 일상적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1997년 발족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주연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며 이주노동자와 외국국적 주민의 권리확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혁 노력,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 NGO간 네트워크 조직, 여성, 연수생, 의료, 차별 감시 등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다.

²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2005),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 NGO의 정책제언(이혜진·이한숙 옮김, 퍼넨곳 ; 산지니).

정부의 거주 외국인 대책을 보면, 현재까지는 거주외국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내보이는 정도의 선언적 수준이며, 여러 정책들이 서로 중복되고 있어 여러 차원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기도 하다.

인천시와 자매·우호도시 간 청소년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 인천시와 천진시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이 연구는 중국의 자매도시인 천진시를 중심으로 양 도시 간 청소년관광교류 여건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양 도시 간 청소년관광교류의 발전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는 양 도시 간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심화시키고 양 도시 글로벌 도시정책의 수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념 및 영향요인

연구에서는 인천시와 자매·우호도시 간 청소년관광교류를 ‘인천시와 자매·우호도시가 양 도시 청소년의 상호 간 이해 증진과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양 도시 차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인적 국제관광교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도시 간 국제관광교류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데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교류 관련 법률·계획 등 정책적 요소, 교류 관련 조직의 발달과 타 분야를 포함하는 기존의 교류 정도, 관련 시설 및 수용여건, 지리적 근접성과 접근수단, 잠재적인 정책수요를 도시 간 청소년 국제관광교류의 영향요인으로 도출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영향요인을 토대로 인천시와 천진시의 교류 관련 법률·계획 등 정책적 요소 분석, 교류 관련 조직과 기존 교류 형태 및 특징 분석, 양 도시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 도시 간 청소년관광교류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인천시와 천진시 간 청소년관광교류 활성화방안 제안

양 도시 간 청소년관광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 유형 개발과 시기의 다변화로 참여 청소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교류사업 전 단계에 걸친 통합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교류사업의 질적 발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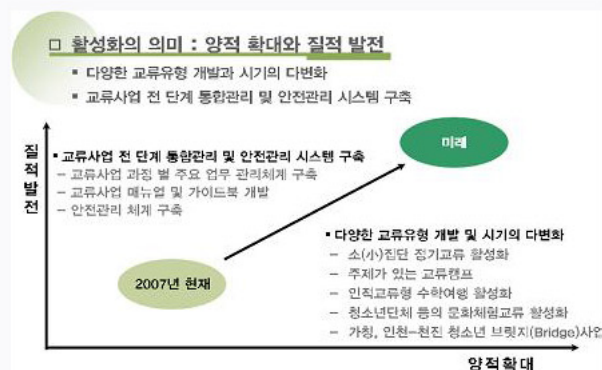
연구에서는 소(小) 집단 정기교류 활성화, 주제가 있는 교류 캠프 개발, 인적 교류형 수학여행 활성화, 청소년단체 등의 문화체험교류 활성화, 가칭, 인천-천진 청소년 브릿지(bridge) 사업 등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을 양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류사업 과정 별 주요 업무관리 체계 구축, 교류사업 매뉴얼 및 가이드북 개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향후 제안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양 도시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실행조직, 지원제도, 재원 확보, 관련 계획 반영 및 홍보 부문으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특히, 양 도시는 가칭, 「인천-천진 청소년관광교류 추진협의체」라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양 도시 간 청소년관광교류 기본계획 수립, 교류캠프 등 공동 기획 교류사업 주최, 지원사항 발굴 및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교류사업 평가 및 연례회의 개최, 정책홍보, 다자간 관광교류협력 사업 개발·확대 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양 도시 간 청소년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인천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4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에는 약 71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게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저소득 노인 인구도 증가하여 노인의 빈곤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이 9.5% 수준인 것에 비해 노인 빈곤율은 17.4%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천시도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7년 7%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24.1%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 한다면 인천의 저소득 노인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소득 노인은 수입원천이 부족하여 한번 빈곤에 진입하면 다시 빈곤에서 탈피하기가 어렵고, 비록 탈피하였다 하여도 다시 빈곤에 진입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노인의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심리적 우울로 인한 삶의 만족도도 낮아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고령사회를 대비한 2007년 노인복지바우처사업의 도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예정 등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가 크지만,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인 저소득노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저소득 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 및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천광역시 저소득노인의 현황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석

인천시의 노인인구 18만 9천940명 중 독거노인은 약 30,000명인 16.24%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15천 568명인 8.2%이며, 차상위노인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만 경로연금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차상위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배제현상이 심각했으며,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복지서비스로 인해 다양한 노인복지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노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부족,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부족, 시설배치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급이 서비스수요자에 비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저소득노인에 대한 복지욕구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은 여성이 많고, 무학인 경우가 많았으며, 가족이나 이웃 등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경우가 30% 이상이다. 저소득노인을 다섯 범주로 분류하여 복지욕구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류	분석내용
상위·수급노인	차상위노인은 수급노인보다 지학적이고, 월평균수입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차상위노인의 57%는 자녀에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음. 차상위노인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지율은 높으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함.
거·비독거노인	독거노인은 비독거 노인에 비하여 교류하고 있는 가족, 이웃, 친구 등의 수가 적었고, 36.5%의 독거노인은 완전 고립상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12.4% 독거노인은 수발이 필요한 상태임.
여성·남성노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학력, 저수입 상태이며 독거노인비율이 높게 나타남. 또한, 생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32.4%는 수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수발필요노인은 어려운 노모수로 그 비율이 높아 수발필요노인은 자립노인에 비해

수발·자립노인	수업, 건강검진율, 질병에 대한 관리, 약복용 등에 있어 취약한 상태였으며, 식사서비스와 방문간호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초고령노인	초고령 노인의 66.4%는 무학이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했으며, 일반노인들에 비해 건강검진율과 질병관리정도도 낮았음. 초고령 노인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정보의 부족을 호소함.

정책건의

·새로 도입되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대비방안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분류가 변화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이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저소득노인 이용비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전체 노인의 약 60%로 추정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문맹이 많은 저소득 노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효과성 증대방안

현재 부족한 노인복지서비스 인적자원에 대한 양적증대와 질적관리의 강화가 요구되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대 및 기존시설(경로당, 노인정 등)의 재 활용 및 효율적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인의 건강을 위한 팀 접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노인인구 고밀도지역은 시설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노인인구 저밀도 지역은 인구비율은 낮지만 노인인구수 및 저소득노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지역이면서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점 경로당을 이용한 복지시설의 기능 제공, 폐교를 리모델링한 재가서비스 제공, 방문보건사업의 중대, 지역주민 교육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인력확충 등의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저소득노인의 유형에 따른 방안

저소득노인 중 차상위노인은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의 증대, 일자리지원을 강화, 의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차상위노인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독거노인은 사회적지지체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인적지원 투입 서비스가 필요하며, 저소득 노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여성 노인은 도움을 청할 곳이 적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수발필요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 인프라 확충, 초고령노인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수급노인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 구축 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4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에는 약 71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게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저소득 노인 인구도 증가하여 노인의 빈곤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이 9.5% 수준인 것에 비해 노인 빈곤율은 17.4%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천시도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7년 7%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24.1%에 이르고 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해 보기

2008년 5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외국인 인구 규모

2007년 등록외국인 수는 76만명에 달하며, 인구 1000명당 외국인수도 15.3명에 달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외국인수는 4.5만명, 1000명당 16.8명에 이르고 있어, 서울 22.0명, 경기 20.6명에 이은 3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시도별 외국인 인구와 1,000명당 외국인 인구수

행정구역	외국인등록인구 (단위: 명)			시도별 총인구 (단위: 명)			시도별 인구 1,000명 대비 외국인수		
	2001	2004	2007	2001	2004	2007	2001	2004	2007
전국	267,630	469,183	765,423	48,289,173	49,052,988	50,034,357	5.54	9.56	15.30
서울특별시	67,908	114,685	229,072	10,331,244	10,287,847	10,421,782	6.57	11.15	21.98
부산광역시	15,497	17,806	27,662	3,786,033	3,684,153	3,615,101	4.09	4.83	7.65
대구광역시	14,476	15,026	19,403	2,539,587	2,539,738	2,512,670	5.70	5.92	7.72
인천광역시	16,959	31,898	45,464	2,581,557	2,610,715	2,710,040	6.57	12.22	16.78
광주광역시	3,595	5,743	10,016	1,387,360	1,406,915	1,423,460	2.59	4.08	7.04
대전광역시	5,645	7,279	12,177	1,408,809	1,450,750	1,487,836	4.01	5.02	8.18
울산광역시	4,760	6,505	12,804	1,060,378	1,087,958	1,112,799	4.49	5.98	11.51
경기도	67,540	165,922	234,030	9,612,036	10,628,842	11,340,241	7.03	15.61	20.64
강원도	4,497	7,265	11,994	1,556,904	1,528,640	1,515,800	2.89	4.75	7.91
충청북도	7,998	11,665	20,731	1,504,518	1,500,610	1,527,339	5.32	7.77	13.57
충청남도	9,951	19,147	30,553	1,928,088	1,972,553	2,026,084	5.16	9.71	15.08
전라북도	7,469	8,932	16,151	2,013,923	1,915,674	1,878,428	3.71	4.66	8.60
전라남도	4,744	7,819	15,126	2,104,052	1,994,011	1,944,962	2.25	3.92	7.78
경상북도	17,893	22,696	33,721	2,802,597	2,718,613	2,715,085	6.38	8.35	12.42
경상남도	17,621	24,920	42,369	3,124,123	3,168,734	3,239,342	5.64	7.86	13.09
제주도	1,075	1,873	4,130	547,964	557,235	563,388	1.96	3.36	7.33

외국인 인구 전국대비 비중 감소

외국인 증가추세는 전국적으로 2001년 대비 연평균 19.1%라는 놀라운 속도의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2004~2007년)의 추세는 17.7%로 과거(2001~2004년) 20.5% 이상 성장한 것에 비해 약간 둔화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매우 높은 증가속도이다.

표. 시도별 외국인 인구분포의 변화와 증가율

행정구역	분포, %			비중변화		기간별 증가율		
	2001	2004	2007	2001~2004	2004~2007	2001~2007	2001~2004	2004~2007
전국	100.0	100.0	100.0			19.14%	20.58%	17.72%
서울특별시	25.4	24.4	29.9	-0.9	5.5	22.46%	19.09%	25.94%
부산광역시	5.8	3.8	3.6	-2.0	-0.2	10.14%	4.74%	15.81%
대구광역시	5.4	3.2	2.5	-2.2	-0.7	5.01%	1.25%	8.91%
인천광역시	6.3	6.8	5.9	0.5	-0.9	17.86%	23.44%	12.54%
광주광역시	1.3	1.2	1.3	-0.1	0.1	18.62%	16.90%	20.37%
대전광역시	2.1	1.6	1.6	-0.6	0.0	13.67%	8.84%	18.71%
울산광역시	1.8	1.4	1.7	-0.4	0.3	17.93%	10.97%	25.32%
경기도	25.2	35.4	30.6	10.1	-4.8	23.01%	34.93%	12.15%
강원도	1.7	1.5	1.6	-0.1	0.0	17.76%	17.34%	18.19%
충청북도	3.0	2.5	2.7	-0.5	0.2	17.20%	13.41%	21.13%
충청남도	3.7	4.1	4.0	0.4	-0.1	20.56%	24.38%	16.86%
전라북도	2.8	1.9	2.1	-0.9	0.2	13.72%	6.14%	21.83%
전라남도	1.8	1.7	2.0	-0.1	0.3	21.32%	18.12%	24.60%
경상북도	6.7	4.8	4.4	-1.8	-0.4	11.14%	8.25%	14.11%
경상남도	6.6	5.3	5.5	-1.3	0.2	15.75%	12.25%	19.37%
제주도	0.4	0.4	0.5	0.0	0.1	25.15%	20.33%	30.16%

전국적으로 약간 증가를 둔화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비해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외국인 인구의 비중이 2001년에는 25.4%에서 2004년에는 24.4%로 줄어들었지만, 최근의 유입증가속도 가속으로 다시 29.9%로 5.5%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즉 서울은 과거보다 외국인 증가속도가 가속화(19.1% → 25.9%)되고 있다.

서울은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외국인 뿐 만 아니라 취업기회를 노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가장 매력적인 곳이다. 노동자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취업기회에 따라 지역별 외국인 증가속도와 외국인분포 비중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고급국제비즈니스를 위한 기회도 또한 역시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국적인 증가를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34.9% → 12.1%), 충남(24.4% → 16.9%)에 이어 인천이다. 인천의 경우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이 확인하다고 파악된다. 전반기 23.4%에서 최근에는 12.5%로 증가율이 둔화되어 대구(8.9%)와 경기도(12.1%)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인구 비중도 2004년 6.8%에서 5.9%로 감소하였다. 경기, 충남에 이어 인천의 외국인 인구 증가 추세 감속은 이들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의 한계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수도권에서 서울의 증가는 비제조업 즉 서비스 등의 일자리 기회가 그만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때문이다.

표. 인천의 구·군별 외국인 분포와 국적별 비중

행정 구역	외국인인 구	1000명당 외국인수	국적별 외국인 인구 비중. %									
			중국	동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대만	미국	기타	기타 선진권	일본	중동	인도
인천 광역시	45,464	16.78	46.14%	33.65%	7.74%	6.38%	1.62%	1.40%	1.17%	1.20%	0.36%	0.34%
중구	7.98%	38.87	42.40%	12.70%	2.26%	34.82%	2.26%	2.31%	1.82%	0.72%	0.55%	0.17%
동구	2.39%	14.45	53.13%	26.61%	4.88%	11.14%	0.55%	1.38%	0.28%	0.92%	1.01%	0.09%
남구	12.95%	14.08	60.94%	15.12%	4.76%	12.36%	1.27%	1.34%	1.07%	1.49%	0.76%	0.88%
연수구	5.97%	9.99	49.45%	25.29%	4.02%	6.67%	5.60%	2.25%	4.06%	2.29%	0.33%	0.04%
남동구	25.61%	26.66	33.41%	51.52%	10.10%	1.17%	0.72%	0.91%	0.70%	0.58%	0.19%	0.70%
부평구	14.79%	11.68	65.94%	18.27%	5.00%	4.24%	2.33%	1.22%	1.19%	1.72%	0.06%	0.03%
계양구	7.03%	9.24	63.57%	19.19%	6.10%	2.75%	2.85%	1.16%	1.85%	2.38%	0.09%	0.06%
서구	21.85%	24.26	33.06%	48.92%	12.79%	0.92%	0.82%	1.57%	0.49%	0.82%	0.51%	0.10%
강화군	0.95%	6.44	50.35%	30.16%	3.94%	1.86%	1.62%	3.25%	4.87%	3.94%	0.00%	0.00%
옹진군	0.48%	12.73	33.33%	65.30%	0.00%	0.00%	0.00%	0.46%	0.46%	0.46%	0.00%	0.00%

주: 동남아시아-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러시아연방, 몽골

중동-요르단, 이란, 이라크, 터키

기타선진국-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인천내 구·군별 외국인 인구 분포

인천내에서는 남동구가 25.6%(11,645명)로 가장 많은 등록외국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서구 21.9%(9,932명), 부평구(14.8%), 남구 12.9% 순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다국적 문화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인구 1,000명당 외국인 수로 보면 중구 38.8명, 남동구 26.6명, 서구 24.3명 순이다. 역시 율동·물류업(중구)과 제조업(남동구, 서구) 일자리가 많은 곳이 해당 지표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46.1%로 가장 높고 대만 6.4%를 포함하여 중화권 전체로 본다면 52.5%가 된다. 이는 전국 비중 52.4%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다.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는 중국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진권(미국, 일본, 기타 선진권) 외국인 인구 비중은 인천 전체로 3.9% 높지 않다. 연수구의 경우는 인천 전체 등록외국인의 5.9%, 1,000명당 외국인 9.9명으로 낮은 편이나 선진권 외국인 비중은 11.9%로 상대적으로 선진권 인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별로는 극히 소수이지만 종교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지닌 이슬람권으로 유사성을 지닌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을 단일 이슬람권으로 보면 이들의 비중이 14.7%로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동남아 33.6%, 중앙아시아 7.7%, 중동 0.4%)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46.1%로 가장 높고 대만 6.4%를 포함하여 중화권 전체로 본다면 52.5%가 된다. 이는 전국 비중 52.4%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다.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는 중국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진권(미국, 일본, 기타 선진권) 외국인 인구 비중은 인천 전체로 3.9% 높지 않다. 연구구의 경우는 인천 전체 등록외국인의 5.9%, 1000명당 외국인 9.9명으로 낮은 편이나 선진권 외국인 비중은 11.9%로 상대적으로 선진권 인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표를 통해 본 인천의 다문화 현황

도시경영연구실 권현진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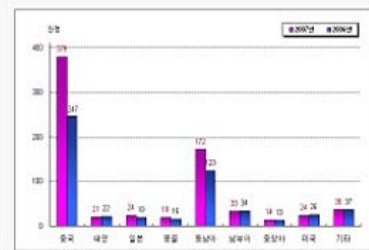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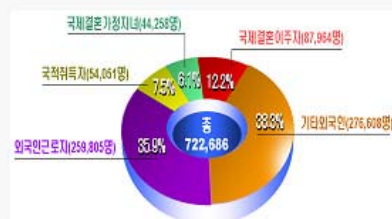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5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현재 선진국내 외국인 비율은 독일이 8.9%, 프랑스가 7%, 스페인 5%, 일본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은 07.5월 현재 722,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외국인주민은 기타외국인(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이 38.3%, 외국인 근로자가 35.9%를 차지하고 있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52.4%(379천명)로 가장 많으며, 거주 지역은 경기(29.7%), 서울(28.7%), 인천(6.0%) 등 수도권에 64.4%가 집중거주하고 있다.



자료 : 행정자치부(2007)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인천은 2007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8,720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다. 여성결혼이민세대 비율은 0.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울(0.44%)보다 약간 높고 경기도(0.45%)와는 같은 수준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생은 모자가 외국인인 학생 448명과 국제결혼가정 학생 495명으로 부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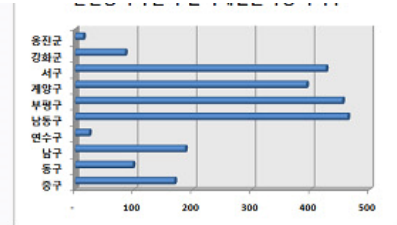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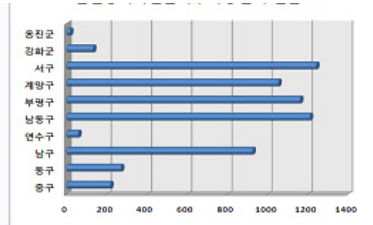


자료 : 행정자치부(2007)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자료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향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인천시의 결혼이주여성분은 서구(1,244명), 남동구(1,213명), 부평구(1,164명), 계양구(1,056명)에 각 천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남동구(463명), 부평구(454명), 서구(426명), 계양구(393명)에 각 3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자료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07년 5월 31일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2007)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현재 선진국내 외국인 비율은 독일이 8.9%, 프랑스가 7%, 스페인 5%, 일본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은 07.5월 현재 722,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외국인주민은 기타외국인(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이 38.3%, 외국인 근로자가 35.9%를 차지하고 있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52.4%(379천명)로 가장 많으며, 거주 지역은 경기(29.7%), 서울(28.7%), 인천(6.0%) 등 수도권에 64.4%가 집중거주하고 있다.